

영하의 추위에도 천막결사는 뜨거웠다

천막법당 주변 온도는 오후 5시가 되자 영하로 떨어졌다. 결사 중인 9명의 스님들이 정진하는 무문관에서 즐기는 마친가 지였다. 이날 처음 개방한 무문관 대중 체험관 역시 영하의 추위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천막법당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의 신심은 뜨거웠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목소리와 다라니 주력수행 열기는 사부지는 추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위례 상월선원에서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동안거에 돌입한 천막결사를 응원하는 첫 철야정진의 신심이 그랬다.

위례 상월선원은 12월7일 상월선원 아래 마련된 임시법당에서 동안거 첫 철야정진을 입재했다. 조계사, 봉은사, 포교사단, 동국대 교직원과 학생, 학교법인 동국대 사부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철야정진에 들어갔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석가모니불 정근, 탑돌이, 소원등달기, 108배, 좌선, '금강경' 독경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도량 전체를 장엄했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목소리는 이날 밤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한 배 한 배 정성스럽게 불보살에게 올리는 108배, 9명의 스님이 정진 중인 상월선원을 둘러싼 하얀 펜스를 탑돌이 하는 사부대중은 그 자체가 신심이었다.

첫 철야정진 입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이 법석에 올랐다. 법산 스님은 “연산화상에서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인 그 소식을 안 가섭존자가 웃자 부처님도 웃었다”며 “처처에 계신 부처님이 그때 보이신 연화미소를 닮아가는 불제자가 되자”고 철야정진 대



위례 상월선원은 12월7일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동안거 첫 철야정진을 입재했다.

상월선원, 동안거 첫 철야정진
조계사·봉은사·포교사단 등 결집
석가모니불 정근·108배·주력수행
한국불교 중흥 원력 하나로 모아
신심 돈은 대홍사 다라니 108독
은석초 학생들은 공연으로 응원

중을 격려했다. 상월선원 동안거 첫 철야정진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정진하는 9명의 스님들의 원력이 성취되길 바랐다. 박춘화(65, 해당성)·이연

재(59, 정본) 보살은 상월선원 첫 방문을 철야정진으로 정했다. 조계사 불교대학 62기 도반인 두 보살은 “큰 원력을 낸 스님들의 서원이 꼭 원만성취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철야정진에 동참했다”며 한 마음으로 기원했다. 이날 철야정진에 앞서 한국불교 중흥 원력을 예원한 사부대중들도 있었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홍사(주지 범상 스님)와 도갑사·무위사 사부대중들은 전날에서 5시간을 달려 상월선원을 찾았다. 범상 스님이 직접 주력을 이끌었고, 400여명의 사부대중이 염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하나로 흘렀다. 대홍사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이어 종립 은석초 학생들은 상월선원 주변 하얀 펜스에 소원등을 달고, 준비해온 작

은 공연들로 마음을 더했다. 리코너 합주팀인 송민서·신정윤·김준휘·인태환(은석초 5) 학생은 “가족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막법당서 정진 중인 9명의 스님들도 건강하게 화합하셨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이어 성악 독창, 플루트, 바이올린 등 은석초 학생들이 펼친 공연은 임시법당과 9명 스님들의 정진력에 힘을 북돋았다. 네 번째 토요정진법회이자 첫 번째 철야정진. 밤 깊을수록 별빛은 더 밝았고 상월선원 미륵불에 오르는 길을 밝히는 연등의 빛은 눈부셨다. 철야정진 열기는 더 뜨거워져 갔다. 한국불교 중흥을 바라는 마음이 지금, 여기 상월선원에서 여물고 있었다. 위례=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봉은사, 복지시설·소외이웃 김장나눔

12월7일 사부대중 500여명 동참
해남군 후원·김장 7000포기 전달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12월7일 경내에서 ‘해남군과 함께 하는 김장축제를 열고 김장김치 7000여 포기를 담가 소외이웃에게 전달(사진)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신도 500여명을 비롯해 봉은사 산하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담근 김장김치는 강남구청, 삼성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사회 복지시설, 독거노인가정 등에 당일 전해졌다. 김장김치에 사용된 절인배추 가운데 일부는 해남군이 후원했다. 향적원 앞마당에 설치된 임시천막 안 테이블에 절인배추와 김치소가 줄지어 놓이자 신도들은 일사분란한 손길로 배추를 버무렸다. 중무원들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은 각 지역과 시설별로 전달할



김치의 양을 확인하며 김치가 담긴 김치통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당초 4시간 가량 예상됐던 이날의 김장은 2시간여 만에 마무리돼 봉은사 신도들의 조직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원명 스님은 “함께 김장을 담근 사부대중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김장은 우리의 전통이자 이웃과 정을 나누는 나눔의 축제인 만큼 김장김치를 전해 받은 이웃들 모두 봉은사 불자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올 한해 2만4000명에게 ‘나눔 템플스테이’를 제공했다.

문화사업단, 2만명에 ‘나눔 템플스테이’

시행 2년만에 괄목할만한 성과
내년 다문화가정 등 대상 확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스님)의 템플스테이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올해에만 2만 4000여명에게 공익 템플스테이인 ‘나눔 템플스테이’를 지원했다. 나눔 템플스테이는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저소득층, 공상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문화사업단은 그간 단편적으로 실시해온 사회공헌 템플스테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나눔 템플스테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상경찰관, 청소년, 보호관찰자, 도박중독자 등에 체계

적으로 나눔 템플스테이를 지원했다. 특히 전국 각지 템플스테이 사찰에 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정센터 등과 협력해 독려하며 나눔 템플스테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왔다. 그 결과 나눔 템플스테이를 지원받은 참가자는 2018년 9795명에서 2019년 2만447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9년에는 전국 134개 사찰에서 나눔 템플스테이에 동참해 올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27만6204명 가운데 나눔 템플스테이가 8.85%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원경 스님은 “공상경찰관처럼 정신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명상과 차담, 108배를 통한 내면 수양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2020년에는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나눔 템플스테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스님들의 단단한 불교중흥 각오 외호”

윤성이·이기흥·선상신·임명배 등
상월선원 재가 첫 무문관 체험

“원래 108시간을 정진하려고 했는데...” 아쉬움과 안도감(?)이 뒤섞였다. 위례 상월선원 동안거 첫 철야정진이 진행된 12월7일, 처음으로 무문관 체험에 참여한 4명의 재가자들의 첫 마디였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선상신 불교방송 전 사장, 임명배 국립공원관리공단 전 상임감사. 이들은 상월선원 무문관에서 동안거 결제 중인 9명 스님들의 정진을 짧게나마 체험하고자 대중체험관에 방부를 들었다. 윤성이·이기흥·선상신·임명배 등 4명

의 재가자는 무문관 입방 전 상월선원 부처님께 첫 무문관 철야정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목숨 건 정진을 결심한 9명의 스님들이 법제 건강하게 정진하시며 깨달음을 성취하시길 염원한다. 입방하는 오늘 인연이 보람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이번 결사가 원만 성취할 수 있도록 중앙신도회와 동국대가 외호하겠다.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는 이번 결사가 참선의 대중화와 한국불교 중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 무문관에 입방한 이들은 총도감 해일 스님에게 휴대폰을 반납하고, 몇 가지 지켜야 할 약속과 정진 일정을 들었다. 이들은 묵언을 기본으로 일제 외부와 접

촉을 차단한 채 오로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하루 한 끼가 청규인 만큼 점심 이후 제공되는 공양은 없다. 시계와 온도계, 일정표 그리고 한 명 누울 수 있는 작은 텐트, 좌복이 이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다.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한 스님들의 단단한 각오에 마음을 더하고자 무문관에 입방한다”는 마지막 인터뷰를 끝으로 문이 닫혔다. 이들과처럼 상월선원 무문관 체험을 하려는 참가자들의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월8일 밤해, 장명, 법원 스님 등 중앙종회 의장단이 무문관을 다녀갔고, 불교대학 최고위 과정에 재학 중인 재가자 4명이 12월 중 예약했다. 중앙종회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선상신 불교방송 전 사장, 임명배 국립공원관리공단 전 상임감사 등 4명의 재가자는 무문관 대중체험관 1호 참가자가 됐다. 본과위원장 각림, 한결, 제정, 만당 스님은 1월초 방부를 들인다. 중앙신도회 부회장 4명도 1월말 무문관 체험에 나선다. 대중체험관은 1박2일 혹은 2박3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명이 정진 가능하다. 02431-0108 최호승 기자

성해 법상스님과 함께하는 천수대다라니 108독 성취기도

국보 제308호 북미륵암 마애여래불의 영험이 깃든 해남 대홍사에서
기도성취 천수대다라니 108독 기도를 봉행합니다. 천수대다라니 기
도를 통해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일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5시~8시30분
장소: 대홍사 보현전

* 참가자에게는 오후 4시부터 국수공양이 제공됩니다.
* 천수대다라니 기도를 빠지지 않고 10회와 21회 참석한
불자님에게는 주지스님이 특별 제작한 단주와 108염주를 증정합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홍사 주지 법상 합장